

27일 Market Index			
▲ 코스피	5084.85	▲ 코스닥	1082.59
	(+135.26)		(+18.18)
▼ 금리 (국고채 3년)	3.094	▲ 환율 (원·달러)	1444.55
	(-0.002)		(+3.95)



美 “관세 다시 25%” 靑 “차분하게 대응”

트럼프 “韓, 무역합의 비준 안해”
청와대, 대미통상현안 회의 열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상황 점검

올해 들어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를 향해 관세 위협을 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을 향해 관세를 25% 수준으로 다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정청은 27일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바빠 움직였다. <관련기사 3면, 6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배석했으며, 잠수함 수주 지

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법안은 ‘관세합의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이다. 국회에 같은 이름이 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으로 향해 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내달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 25% 인상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 데 대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보면 국회는 2월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 심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설 자금 39조 투입… 먹거리 물가 관리”

구윤철 부총리, 설 민생안정대책
배추·사과 등 성수품 27만t 공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중점 관리에 나선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t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 39조3000억원도 투입한다. 특히 910억원을 들여 배추·무·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대체적으로 2.1%로 안정적으로 예상되지만 생활물가 어려움이 예상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생활물가 중

에서 먹거리 가격이 높아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보면, 정부는 우선 배추·무·사과·배·소·돼지·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을 공급한다. 이는 평시 공급 규모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계란의 경우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설 이전까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국내 계란유통 단체와의 협의회도 병행한다.

특히 정부 할인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배추·무·고등어 등 성수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스피 종가기준 첫 5000 돌파



코스피가 전 거래일(4949.59)보다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장을 마감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64.41)보다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에 거래를 마쳤다. (관련기사 4면) /뉴스

한화, 철강·AI 등 캐나다 기업 5곳과 맞손

60조 잠수함 수주 전력투구

한화오션-‘철강업체’ 알고마 스틸
3650억 출연, 현지 강제공장 건설
HD현대, 수조원대 산업협력안 제시

한화그룹과 HD현대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겨냥해 철강·인공지능(AI)·우주·조선·에너지 등 전 산업을 아우르는 대규모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원팀 코리아’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특사단이 동행한 가운데 현지 핵심 산업과의 투자·기술 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캐나다가 중시하는 절충교역과 산업 참여 확대 요구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에서 캐나다 철강·AI·우주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최대 철강업체 알고마 스틸과 MOU를 맺고,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제로 현지 강제 공장 건설과

잠수함 건조·정비(MRO) 인프라에 활용될 철강 제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3억4500만 캐나다달러(약 3650억원)를 출연할 계획이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캐나다 유니콘 AI 기업 코히어와 3자 MOU를 체결해 인공지능 기술 협력에도 나섰다. 코히어의 대형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모델(LMM)을 기반으로 생산계획, 설계, 제조 등 조선산업 전반과 잠수함 시스템 통합·운용에 적용 가능한 특화 AI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우주·위성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한화시스템은 캐나다 위성통신 기업 텔레셋과 저궤도(LEO) 위성통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통신위성 제조 및 위성단말 개발 역량을 텔레셋의 위성망 운용·설계 기술과 결합해 차세대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한국 ‘군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텔레셋은 올해까지 198기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립 제닝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왼쪽부터),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 이반 장 코히어 공동 창업자,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빅터 피델리 온타리오 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이와 함께 한화시스템은 캐나다 우주 기업 MDA 스페이스와 방산·안보 목적의 위성통신 및 우주 기술 협력 MOU를, 전자광학 기업 PV 랩스와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 기술 고도화를 위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 한화시스템은 첨단 방산전자 및 우주 시스템 분야 전문성을 MDA 스페이스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정의 위성(SDS) 플랫폼 ‘오로라’와 결합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으로, 여기에는 잠수함 작전과 연계한 보안 통신과 데이터 복원력, 지휘·통제 기능도 포함된다.

HD현대도 수조원대 산업 협력안을 제시하며 총력전에 가세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잠수함 MRO 역량을 앞세워 캐나다가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용·정비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지 조선소에 합정·잠수함 기술과 선박 건조 노하우를 이전해 캐나다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캐나다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선·제조업은 물론 AI·바이오 등 첨단 분야까지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하며 양국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HD현대오일뱅크를 중심으로 캐나다 원유 업체와 협력해 사업 기간 동안 수조원 규모의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병행한다.

한화와 HD현대의 산업 협력안이 실행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與과방위 “박장법, 계엄 보도·편성 준비 전달… 사퇴하라” /사진 뉴시스
▲여야, 29일 민생법안 처리 시도…필법법 개정 가능성도

▲국힘 외통위 “정부여당, 대미투자 협의과정 공개하라…국회 검증절차 거부”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당론 발의 “노사관계 법적 안정성 제고”

▲與, 트럼프 ‘관세인상’ 예고에 “특별법 협의 중…정부와 긴밀협조”
▲진보 野 4당, 공동 의총…“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이룩”